

“우리 것이 좋은 것”... 국산 굴비는 배 부분이 황금색

추석 제수용품 잘 고르는 법

해마다 찾아오는 한가위지만 그 때마다 차례상을 차리는 주부들의 고민은 깊어지기 마련이다. 명절 때 마다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도 불구하고 격식에 따라 그해 수확한 신선한 제철 음식으로 차례를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장기 폭염과 가뭄 등 이상기온 현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제수용품 장만에 부담을 느끼는 주부들이 많다. 추석 차례상 준비를 위한 제수용품 고르는 법을 알아보자.

생선 눈알 맑고 선명해야

▷생선류=생선은 눈알이 맑고 선명하며 앞으로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 배를 눌렀을 때 팽팽하고 탄력이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아가미는 암적색이 아닌 선명한 선홍색을 띄고 있어야 하며 물이 많이 나오는 것은 한번 냉동했던 것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입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굴비는 비늘이 고르게 촘촘히 박혀있고 몸통에 비해 머리 부분이 작고 배 부분이 노란색인 것이 좋다. 원산지 관련 시비가 많은 만큼 조기를 고를 때는 몸 전체가 붉은색으로 몸통이 두툼하며 길이가 짧은 것이 국내산임을 기억하자. 비늘이 거칠고 유난히 몸에 광택이 많은 것은 수입산이다.



〈굴비〉

홍색을 띠면서 조식이 단단하다. 윤기가 있고 고기의 결이 고운 것도 특징이다. 근육 내 지방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형태가 다양한 것이 최상품이다. 영양가가 높은 사료를 먹고 자라거나 어린 소



〈한우〉

일수록 지방이 흰색을 띠므로 소고기 육질 사이의 지방은 우윳빛을 띠면서 윤기가 나는 것이 좋다. 또 국산의 경우 우덩어리 형태도 다양하고 등심은 자른 면에 딱심이 들어가 있지만 외국산은 타원형에 딱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소갈비는 지방이 흰색이고 짝갈비(덩어리) 형태로 팔리는 것이 국산이다.

외국산과 가격차 최고 4배

▷나물류=나물의 경우 국내 생산량이 적은 고사리와 도라지의 경우 수입산과 국내산 가격이 최고 4배까지 차이 난다는 것을 유념하자. 국내산 도라지는 길이가 짧고 가늘며 등



제수용품을 고를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품질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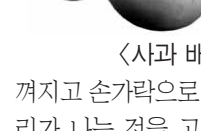
〈도라지 고사리〉

그렇게 말리는 성질이 약하다. 잔뿌리가 비교적 많이 붙어있고 원뿌리도 2~3개 정도만 갈라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산 고사리의 경우 연한 갈색에 너무 길거나 굵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손으로 뜯기 때문에 줄기 아랫부분의 단면이 불규칙하고 줄기 윗 부분에 잎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을 찾으면 된다.

사과 두드리면 맑은소리

▷과일류=배는 맑고 선명한 황갈색에 윤기가 나야 품질이 좋은 것이

다. 특유의 점무늬 크기가 크고 꼭지 부분이 없는 경우 맛이 뛰어나다. 배는 쉽게 무르기 때문에 보관에도 신경 써야 하는데 가장 좋은 상태로 두려면 구입하자마자 비닐랩으로 날개 포장해 냉장고 안에 넣으면 된다. 사과를 껍질에 탄력이 느껴지고 손가락으로 뽕졌을 때 맑은 소리가 나는 것을 고르자. 전면에 골고루 붉은 빛을 띄고 밤새를 말았을 때 향긋한 것이 좋은 품질의 사과다. 햇단감은 크기가 클수록 좋지만 표면에 굴곡이 있는 것은 피해야 한다.



〈사과 배〉

밤알 도톰하고 껍질 갈색

▷견과류=좋은 밤은 국산이 개량종으로 알이 도톰하며 껍질이 갈색이며 윤기가 난다. 남은 밤을 보관할 때에는 비닐봉지에 넣어 밀봉한 후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다. 대추는 알이 굵고 주름이 고르며 껍질이 깨끗한 것이 좋다. 선명한 갈색을 띠고 윤기가 많이 나며 탄력이 있고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나지 않고 꼭지가 붙어 있는 것이 상품이다. /시민기자=김정미



〈밤〉

소고기 선홍빛에 조직 단단

▷육류=좋은 소고기는 선명한 선



‘레드페이스’ 추석맞이 아웃도어대전

12~29일 전국 390개 매장에서... 신상품 30% 할인

레드페이스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도보여행, 등산 등 다양한 야외 레저활동을 즐기는 아웃도어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올이벤 행사기간 동안 추석 선물로 부모님을 위한 다양한 가을아웃도어 신상품을 마련해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또 행사 기간 동안 15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는 레드페이스의 새로운 캠페인 ‘갯레드’(get RED) 로

고가 들어있는 빨간우산을 증정하고, 선물포장도 해준다. ‘추석맞이 아웃도어 대전’ 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가장 인기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 아이템은 최상의 방수성과 투습력을 제공하는 콘트라멀티팩스킷(16만8000원), 흡습·속건 기능이 뛰어나고 보온성이 좋은 이엑스트레임저티셔츠(4만8000원), 뛰어난 착용감을 자랑하는 슬립핏의 플렉스클라이프셔츠(6만9000원) 등이 있다. 드라이필드팬츠(6만9000원), 이엑스클라이프팬츠(7만8000원), 콘트라마린캡(4만2000원)도 주목할 만한 상품이다. 히터팩 소재를 손바닥 부위에 사용하여 보온력을 강화시킨 플렉스블러클러브(3만6000원), T자 콜크그립을 사용한 티워킹투스텝스틱(3만5000원)도 아웃도어 애호가들에게 주목을 끌 전망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실물 컬러가 더 예쁘네요” “가격 대비 대만족”

의류 쇼핑몰 댓글조작 무더기 적발

구매후기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한 인터넷 의류쇼핑몰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직원을 시켜 상품평 댓글을 조작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한 9개 의류전문몰 사업자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950만원 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트라이서클(사이트명 하프클럽, 오가게), 토크앤빗(토크앤빗), 난다(스타일난다), 미아마스틴(미아마스틴), 임여진(11am), 아이스타일잇사(아이스타일24), 다홍앤지니프(다홍), 다크빅토리(다크빅토리), 파티수(파티수) 등 9개 업체 10개 사이트다.

공정위는 앞서 하루평균 방문자 수(랭키닷컴 1월 15일 기준) 상위 10개 의류쇼핑몰 사이트를 선정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여부를 점검했다. 하프클럽, 오가게, 토크앤빗, 아이스타일24는 업체 직원이 허위로 구매 후기를 올려 소비자를 유인했다가 적발됐다. ‘딱 좋은 카디건’, ‘진심 예쁘네요’, ‘실물이 컬러가 더 예쁘네요’, ‘가격 대비 대만족입니다’ 등 구매욕을 자극할 만한 후기를 소비자 아닌 직원들이 올린 것이

다. 2012년 한 해 동안 게시한 허위 구매 후기는 토크앤빗 9796건, 오가게 4218건, 하프클럽 3174건, 아이스타일24 488건 순이었다. 동일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하프클럽과 오가게는 작년 1년간 불만족한 고객 후기 2106건을 삭제하기도 했다. 삭제된 후기에는 ‘이 가격에 산 게 후회된다’, ‘배송이 너무 느리다’, ‘싼 게 비지떡’, ‘겨울에 입기에 너무 얇다’ 등 소비자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다. 하프클럽은 소비자에게 취약할 연극초대권 등 이벤트 경품을 직원에게 지급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토크앤빗, 스타일난다, 미아마스틴, 11am, 다홍, 다크빅토리, 파티수 등 7개 업체는 흰색 계열 의류나, 할인상품, 수제화 등 범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물품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가 청약철회 방해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250만~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시정명령 부과 사실을 3~5일간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건강기능식품 중 홍삼 비중 46%

2008년 이후 첫 절반 이하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홍삼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이후 처음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가 최근 발간한 ‘가공식품 세부시장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생산액 중 홍삼제품의 비중은 46% 집계됐다. 2008년 홍삼제품의 비중은 52.1%였으며 2009년에는 52%, 2010년 54.5%, 2011년 52.5%를 기록했다. 홍삼제품 생산액은 2008년 4184억, 2009년 4995억, 2010년 5817억원으로 지난해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왔다. /연뉴스

농식품부 관계자는 “홍삼 제품의 생산 물량 자체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판매가격이 떨어졌을 수도 있다”며 “홍삼제품의 비중과 생산액이 감소한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년보다 비중이 다소 떨어지긴 했으나 홍삼제품이 국내 시장을 확고하게 장악한 영향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은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2004년 4억3230만 달러를 기록한 전체 건강기능식품 수입액은 2011년 3억3786만 달러로 줄어든 반면 건강기능식품 수출액은 2004년 423억원에서 2012년 584억원으로 증가했다. /연뉴스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충장로5가 버스도롯점 대지777㎡(235) 공시지가 17억7천 선 오피스텔, 상가개발적합 9억6천
- 북구 유동 상업지역 대지411㎡(124) 2층건물 99평 공시지가 2억8200 매도3억
- 합평 영업 잘되는 여관과 접한 2층 주거지 땅 504평. 땅에는 생활주택적합 대출4억 매도10억5천
- 북동 고용센터 옆 상업지64평 원룸적합 1억6천
- 계림동구호빌딩 대지 542㎡(164) 건평 1200평 요양시설·병의원·한의원·사육적합 18억
- 대인동 소방도로점 상업지역 786㎡(238) 오피스텔·생활주택 등 적합 9억5천

매도·임대

- 매도. 수기동 상업지역 705㎡(213) 원룸·투룸·쓰리룸 92개 허가. 주택기금12억가능. 대출3억 매도7억8천
- 매도. 목포대학 입구 원룸 84개 허가난 땅 476평 목포대학 확장으로 사업성 좋음. 대출2억8천 매도5억6천
- 매도. 신안군 지도읍 슬로시티중도·월드라도 가는길. 바다가 보이는 별장용APT 모임이나 회사의 휴게시설에 적합. 30평22세대 41평5세대 대출은 8천에서 1억가능. 30평은 1억3900만원 41평은 1억8500. 임대도 가능
- 임대. 신항동 보건대학 부근 대로변 주택전시관 1층167㎡(50) 보증금5천에 월200선 임대. 조건은 조정가능
- 임대. 쌍촌동 (구)장군관사에 신축중인 호텔급 시설의 생활주택 10평형 기준 전세 1000에 월40선에 임대함. 10월초 첫 입주 지하철 상층역에서 6분 거리
- 임대. 쌍촌동 가도건설의 주택전시관70평 PC방, 미장원, 찻집, 식당 등 다용도 사용가능 분할임대도 가능. 보증금 5천에 월200선 가능

☎ 문의 222-4994, 010-2632-5659
금당부동산은 가도건설 전속중개사무소입니다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채대리업체(법원인가)
근린시설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 시설

- ▷동구 지산동 준주거 3층근린 대지241㎡ 건평307㎡ 감청가4억
- ▷광산구 쌍암동 일반상업 숙박시설 대지1760㎡ 건평 2821㎡ 감청가46억 최저가126억
- ▷나주시 송월동 상업지역 6층상가 대지545㎡ 건평 2309㎡ 감청가13억 최저가7억

단독주택

- ▷북구 장동동 전원주택 대지1763㎡ 건평137㎡ 감청가1억8천만
- ▷북구 운암동 2층단독주택 대지149㎡ 건평161㎡ 감청가1억 최저가7천만
- ▷나주시 남내동 2층주거 2층주택 대지319㎡ 건평297㎡ 감청가2억3천만 최저가1억3천만

공장및창고

- ▷북구 대촌동 창고및대지 토지2800㎡ 건물303㎡ 감청가11억 최저가8억
-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청가30억 최저가17억
- ▷강진읍 송덕리 방동,저온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청가94억 최저가127억

토지매매

-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상당후 가격조정
- ▷무안군 해제면 덕산리 관리지역 전,임야 3642㎡ 매매3,500만
- ▷광산구 지평동 자연녹지 대지.전 2115㎡ 매매5천만(조정가)

☎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 순천법원 정문 앞, 신축건물
⇒ 농협 뒷 건물 4거리 코너
⇒ 호수공원 근접거리

순천·상가 임대

상담문의. 010-4667-9300

⇒ 1층(82평)-평당 650만원
⇒ 2~5층-평당 330만원
⇒ 각 층 분할 가능, 모든 업종가능